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8, 도서 조사, Jude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도서 조사, Jude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세그먼트를 새로운 세그먼트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적 조사의 표본으로 유다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또한 세그먼트 조사의 샘플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한 가지에 대해서는 더 관리하기 쉬운 길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 제목이 아닌 단 하나의 장만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락에 제목을 부여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방금 언급한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사용하여 작업해 왔으며, 이는 연구 목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영어의 표준 번역에 가장 가까운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RSV는 NIV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1611년의 공인판인 킹제임스역(King James Version)에서 1901년의 미국 개정판을 거쳐 번역되는 직계선에서 있습니다. .

그리고 물론 1948년 신약과 1952년 구약에 나온 개정 표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론 NRSV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영어 표준 버전인 ESV는 본질적으로 RSV입니다.

ESV 서문에서 명시적으로 말했듯이, ESV 편집자의 신학적 헌신이나 확신을 반영하는 여기저기에 몇 가지 변경 사항만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RSV입니다. 그러나 RSV와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그것이 번역 이론의 두 극단 사이에서 실제로 중재 위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번역은 실제로 일종의 연속체를 포함합니다. 번역 이론의 한쪽 끝에는 때때로 형식적 동등성, 또는 형식적 또는 언어적 동등성 등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단어 대 단어 종류의 번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번역가는 해당 그리스어 또는 히브리어 단어 등에 대해

이 영어 단어에 정확히 맞는 그리스어 또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때로 경멸적인 의미로 목판 번역 또는 직역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일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확장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식별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종종 전체 괄호를 사용하며 그 안에 여러 단어가 함께 의미되어 의미를 포착합니다. 사용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생각.

이 연속체의 반대편에는 때때로 동적 동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견해는 번역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영어 단어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사고 단위를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이나 심지어 전체 문단의 의미나 생각을 파악하고, 그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성서공회, 즉 연합성서공회에서 나오는 모든 번역본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예는 의역일 것입니다. 의역은 동적 동등성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내 생각에 RSV의 가치는 이 둘 사이의 중재적 위치를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적 동등성이나 동적 동등성에 전념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움직일지 또는 개별 구절의 번역 요구에 기초하여 번역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번역 이론의 적용 측면에서 더 절충적이고 더 귀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IV는 어떤 곳에서는 이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NIV의 다양한 부분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느 정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은 RSV에서 발견한 NIV의 동적 동등성 또는 언어적 동등성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사고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RSV를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NRSV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SV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ESV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RSV입니다. NRSV는 일반적으로 좋은 번역이지만 NRSV가 번역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SV를 개선한 곳도 있지만, 실제로 번역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RSV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RSV와 관련된 것 중 하나는 인간의 경우 성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나 인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여성들이 그런 종류의 언어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번역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저는 그 가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RSV에서 찾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RSV의 단락은 들여쓰기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들여쓰기가 있는 곳에는 새 단락이 있고 이것이 이 단락, 단락 제목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유다서는 서신이므로 이데올로기적 일반 자료임은 물론이다.

주요 관심사는 아이디어 제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에녹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실제로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며, 책 내용의 주요 관심 사항인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장소가 언급되고, 사건이 언급됩니다. 이제 메인유닛과 서브유닛에 관해서는 다시 한발 물러서서 이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위와 하위 단위를 자료가 허용하는 한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 조사에서는 세부 사항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책의 더 넓고 전체적인 움직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책의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닛과 하위

유닛을 자료가 허용하는 한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 판단으로는 여기 1절과 2절에서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물론 편지의 본문은 3절에서 시작하고 24절과 25절에서 서신적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영광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노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통치권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절부터 23절까지가 편지의 본문이 됩니다.

이제 나 자신도 뒤로 물러나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여기에서 4절과 5절 사이에 중요한 단절이 오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에는 실제로 이 편지에 대한 일종의 발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우리 유일하신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오래 전부터 이 형벌을 받기로 미리 정해졌던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자백을 받았느니라. 보시다시피, 이것이 하는 일은 사건과 편지의 일반적인 진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편지의 어떤 경우뿐만 아니라 편지의 메시지도 여기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여기 3절과 4절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들은 3절과 4절 내의 하위 단위, 즉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해 기록하려는 원래 의도와 현재의 관심사, 즉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호소하는 것과 그 이유를. 4절, 여기서 명시적인 입증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우리 유일하신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오래 전부터 이 형벌을 받기로 미리 정해졌던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자백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이 5절부터 23절까지 오면, 나는 여기에 라벨, 즉 주소를 붙였습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과 자비의 역할에 대한 호소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3절과 4절의 일반적인 설명에서 바울이 3b절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되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 호소의 이유, 즉 불경건한 사람들의 인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소에 관해서는 순서가 반대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5절부터 16절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3절에서 그들이 믿음을 위해 싸우도록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교차 배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진술에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호소, 그리고 그 이유, 불경건한 자들의 인정,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에서 그는 불경건한 자들의 인정으로 시작합니다., B 프라임, 그리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호소, A 프라임으로 끝납니다.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5절부터 23절까지의 주소에 있는 하위 단위는 물론 5절부터 16절까지, 괴롭히는 자들, 곧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독자들에 대한 권고 또는 호소. 이제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가야 할 단계는 이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여기 하위 단위 내의 단위도 식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언이 있는데, 이는 5절부터 7절의 과거 예를 통해 확증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당신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불경건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확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의해 여기에 세워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의 과거 예언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는 실제로 너희 가운데 온 자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며 과거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같으며 과거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선언된 심판과 유사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예와 과거의 예언에 의해. 그리고 물론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권고를 소개하는 17절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권고(17절부터 19절)는 두 번째 권고인 행하라는 권고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라는 권고(20절과 21절)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라는 권고(22절과 23절) 23절.

이제 다시 5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당신이 5절부터 16절까지 강조한 것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와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그는 심판의 확실성을 논하기 위해 기독교 이전의 계시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특히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가 두 번째로 지적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적 계시를 향한 움직임인 반면, 5절부터 16절까지의 초점은 사도적 계시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사용한 기독교 계시, 특히 구약성서의 이야기와 구약성서의 예언, 주로 확실히 기독교 이전 계시를 사용한 기독교 계시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그가 하는 일은 그곳의 사도적 계시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스스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라는 권면이니라 22절과 23절에 의심하는 자들을 확신시키고 몇몇을 구원하라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얼룩진 옷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여기에 규모에 따라 차트에 그려진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그가 여기 독자들에게 권고하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에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임계량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책이 여기 독자들에게 권고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은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매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묘사와 들어온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더 많은 공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여기 있는 독자들에게 권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작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더많은 공간, 더 비판적인 관심, 즉 임계 질량 측면에서 한 주제에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관계로 보면 주요한 구조적 관계는 물론 1절과 2절의 인사말이 준비나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다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배경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배경을 포함한다. 첫째, 작가의 배경이다.

그의 정체성은 Jude이고 그는 관계 측면에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수신자의 관점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는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사랑받는 자라,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인사말로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절의 각 주요 구성 요소, 즉 그가 저자, 수신자, 구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인 3절부터 24절까지 준비하고 조명하는 방식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왜 이 책을 자신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암시하는 바, 신학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언급했듯이 3절과 4절이 일반적인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미 제안했습니다. 앞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당신은 실제로 일반적인 진술 자체 내에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려 함이니 이는 오래 전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졌던 어떤 이들이 은밀히 시인하였음이라 너희를 용서하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아 율법을 굽게 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하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따라서 실제로 일반 진술 내에 입증의 실증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한 불경건한 사람들이 은밀히 그 믿음을 자인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진술과 그 일반 진술의 특수화는 5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교차 동맹에서 풀려나고, 발전되고, 구체화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경건함과 그들의 정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일반적인 진술에서 그는 누가 지정되었는지, 오래 전에 이 정죄를 위해 지정되었는지를 주목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이 오래 전에 지정되었다고 말하며, 물론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래 전에 제시된 모델이나 예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 이전에 제시된 예언에 대해 말할 때 특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래 전에 여기 5절부터 16절까지 지정했던 불경건한 사람들과 그들의 정죄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구체적으로 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느니라.

아마도 유다서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중 하나일지도 모르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특수화, 즉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에 비추어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에 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주요 요소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설명되거나 전개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호소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독자들에게 주는 권고를 어떻게 밝혀 줍니까? 결국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말할 것은 실제로 그가 여기서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이해는 17절부터 23절까지의 의미를 어떻게 밝혀 줍니까?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 즉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 특히 5절부터 16절까지의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밝혀 줍니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과 이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차이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석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사실은 한때는 믿음의 모든 사업이 성도들에게 전달된 모든 것은 정통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통주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거짓 교훈이 아니요 거짓 생활과 경건하지 아니한 생활 방식과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전문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책 전체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교차주의는 독자의 책임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성격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조명합니까? 교차교차에 관해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차교차의 기능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A와 A 소수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B, A처럼 A, B와 같은 교차점이 있을 때 교차점의 목적 중 하나는 A와 A 소수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B와 B 소수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차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위해 싸우는 이 사업과 권고,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 싸우는 구체적인 내용, 즉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권고가 실제로 주요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당신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차교차 속에서 그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저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 호소와 호소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책을 시작했을까? 그는 왜 이런 식으로 논의했는가? 그는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그랬듯이 호소와 호소의 이유, 즉 불경건한 자들과 그들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과 정죄를 받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의 차이를 그와 같이 다루기로 선택하셨는가? 왜 그는 이러한 교차를 통해 독자의 책임과 문제아의 성격 사이의 관계를 지지하고 조명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내포하는 의미, 즉 완전한 신학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책의 본문에서 대조와 함께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5절부터 23절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의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부터 해야 할 것까지.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격 때문에 완전히 사악하고, 그런데 또한 당신을 그 궤도로 끌어들이려는 종류의 악도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그들만의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 16절까지 그가 묘사한 악, 그들의 악의 성격의 일부입니다. 이 성격은 완전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악에 닥치는 결과 때문에, 그들의 악의 성격과 그 악의 결과, 그 악의 심판 결과 때문에, 여러분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명령형, 지시형, 명령형, 웅변형, 인과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되도록 도우며 그들과 완전히 다르게 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나,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십시오. 따라서 인과관계와 대조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종류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의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에는 정확히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 설명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악행부터 하나님의 심판까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이러한 권고를 초래하고, 유발하고, 생산합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썽꾸러기들에 대한 묘사와 작가가 독자들에게 추구하라고 권고하는 삶의 종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과관계와 대조 모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 따르면 왜 이 방해자들이 그토록 완전히 악한가?라는 합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한 가지 유형의 합리적인 질문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합리적인 질문은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다는 왜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까? 그는 왜 이것을 썼습니까? 그는 왜 이것을 강조했다는가? 그러나 쓰여진 내용의 논리를 향한 합리적인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에 따르면 왜 이 방해자들이 그토록 완전히 악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편지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이 서신에 따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심판을 내리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는 그들의 죄와 불경건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서 작가는 왜 작가의 목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질문에 빠졌고, 왜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했으며, 왜 죄와 심판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강조하고 싶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왜 작가는 문제아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한 자신의 권고를 뒷받침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고 있는 신학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Judith는 해석 단계로 직접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짧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반드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관찰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해석의 다리. 이제 우리는 여기에 결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4절의 서간적 결론은 실제로 송영으로 제시됩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여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5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위협이나 위협과 의로운 삶에 대한 권고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실제로 24절부터 25절까지에 의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의인으로 평생에 지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즉, 여기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존의 능력이 실제로 의로운 삶에 관한 권고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권면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며 의심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며 어떤 사람을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려 함이니라 여기 24절과 25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존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증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존의 능력이며, 이는 3절과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의로운 삶에 관한 권고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인간 능력에 기초하여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으며, 자신의 길을 찾은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유다의 권고를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독자들이 권고를 이행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위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러한 결정적인 질문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 안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설명과 의로운 삶에 대한 권고에 대한 뒷받침이나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까? 그런데 24절과 25절도 이 편지에서 불경건한 자에 대한 심판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불경건한 자가 반드시 불경건할 필요는 없다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불경건은 실제로 은혜에 대한 모욕이고, 불경건한 삶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능력, 신성한 자원은 실제로 죄에 대한 심판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24절과 25절,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대한 송영적 확인은 어떻게 이 책을 절정에 이르게 하고 책 전체를 조명합니까? 왜 합리적 질문을 했는지, 왜 저자는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찬송으로 5절부터 23절까지의 자신의 설명과 권고를 지지하거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사실인데? 그가 실제로 그것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왜 그는 책에 있는 권고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 신성한 능력을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책에서도 대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는 3~6~7개의 주요 구조적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와 문제아 사이에 반복되는 전기적 대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독자들은 3절과 20절에서 거룩한 자들로 묘사되는 반면, 여기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묘사됩니다(4, 15, 18절). 독자들은 자비를 경험하거나 기다리는 반면(2, 21, 23절),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을 경험하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 독자들은 흠이 없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고(24절), 괴롭히는 자들은 더럽고 얼룩진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8, 12, 23절).

독자들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되거나 기대됩니다(20절). 괴롭히는 자들은 영이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19절). 독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24절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괴롭히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져 나갑니다(6절). 독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의 언어입니다(3, 25절). 괴롭히는 자들도 멸망합니다. 그의 언어도 그렇습니다(5, 7, 10, 11, 13, 15절).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대조와 관련하여 독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이의 반복되는 대조, 서론과 결론의 역할에 주목할 것입니다.

서문이 독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결론은 독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이다.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로다. 반면에 23절부터 23절까지는 반대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keep이라는 단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가 Terrell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에 보관된 단어는 6절에서 한 구절, 두 번,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두 번 사용된 “지켰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주목하세요. 하지만 책 전체에서 그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독자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자기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반면에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위해 보호해주셨으나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keep은 실제로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독자는 한 가지를 위해 유지되거나 한 가지를 위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불경건한 자는 다른 일을 위하여 가두어졌으나 자기를 지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에 대해 우리는 결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함축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주요 차이점 각각과 독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이에 아직 확인될 수 있는 다른 차이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차이점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밝혀줄까요? 본문과 유지된 주제와 관련 하여 서론과 서론 결론의 역할은 독자와 문제아 사이의 차이점에 어떻게 기여하고 조명합니까? 따라서 그들은 모두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질문은, 왜 유다서의 논리에 따르면 독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전개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신학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비교를 반복합니다. 악, 악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묘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현재 현상과 반복적으로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들 또는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의 과거 설명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번 자세히 알았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 것이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음행을 행하고 음욕을 행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으나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있는 백성이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꿈을 꾸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욕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통해



과거의 기술에서 현재의 현상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9절과 10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과거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싸울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현재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다시 11절.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며 가인을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함이라.

지난 설명입니다. 이제 현재의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너희 애찬의 흠이 되는 자들이니 저희는 담대히 함께 즐기며 자기를 보살피는 자들이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늦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요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니이다.

14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시니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불경건하게 행한 불경건한 행위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가혹한 일을. 봐, 그건 과거야.

이제 비교를 통해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사람, 큰소리로 떠드는 사람,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과 18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이제 19절은 과거의 설명입니다.

이제 현재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여행자에 대한 과거의 묘사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경건한 현재의 현상과 반복적으로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거의 묘사와 현재의 현상 사이의 구체적인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사점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사점들은 이 불경건한 자들, 즉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성품을 어떻게 밝혀 줍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유사점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어떻게 밝혀 줍니까? 합리적인 질문.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과거의 묘사와 이러한 면에서 그토록 유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사성을 제시하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식별한 주요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대 전략적 영역을 식별합니다.

물론 3절과 4절은 우리가 본 것처럼 실증과 대조를 통해 특정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5절, 17절부터 20절, 23절은 실증의 반복으로 인과 대조를 나타내고 대조의 반복과 비교의 반복을 나타낸다. 24절과 25절은 도구를 사용한 실증을 나타내고 1절과 2절은 준비 실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를 기반으로 한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분명히 구약성서와 외경, 위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유대인이었고 특히 유대 묵시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신자들이었고, 이는 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그를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공통된 구원과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3절과 5절에 따르면 독자, 작가와 사전 접촉을 가졌고, 사도적 증거 아래 개종하거나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회는 일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불경건한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쓰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였으며, 우리는 그가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합니다. 또한 기록 연대는 사도 시대 이후 어느 시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을 적어도 사도들이 봉사한 후 얼마 후에 교회의 독자들 곧 이 서신서를 다시 읽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기억하라 .

다른 주요 인상과 관련하여, 이 책의 어조는 특히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서 비난의 어조이지만, 특히 독자들을 향한 희망과 격려의 어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아마도 모세의 가정과 에녹서의 가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백하게 정경 외의 자료를 두 번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3절과 4절의 일반적인 진술은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쓰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문구는 책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다른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가 실제로 쓴 것과 원래 쓰려고 했던 것 사이의 대조를 지적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쓴 내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즉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호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믿음에 맞서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썼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문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여 싸워 권면할 필요를 느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였으므로 주님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로 써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믿음은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이는 그가 실제로 그들에게 쓴 내용이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음, 어쨌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다서를 개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도서 조사 측면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납적 성경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도서 조사, Jude입니다.